

안면도 행복목욕탕

군민과 함께 쌓아온 신뢰
다음 4년의 단단한 책임!

1 다 박용성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태안군의회의원선거 | 태안군 나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성	남	1965. 8. 19. (60세)	태안군의회 의원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농학사)	(현) 태안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전) 안면읍 남성의용 소방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638,069	888,605	321,607	286,616	141,241	육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4,416	0	0	해당없음
후보자	13,178	0	0	
배우자	888	0	0	
직계존속	350	0	0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태안의 내일에 온기를 채우겠습니다

‘행복 목욕탕’을 막 나서는 어르신들의 미소,
하루의 고단함을 녹여낸 어르신들의 그 맑은 미소를 기억합니다.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그 웃음꽃 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
그것이 제가 가슴에 품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정치는 땀방울 가득한 들녘과 저잣거리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자연스레 논밭으로 발길 돌리고,
바람이 불면 포구 앞에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군민과 함께 그 세월을 건너오며, 낡은 관성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었고,
행정의 얽힌 매듭을 풀어 예산의 물길을 바로잡는 안목을 익혔습니다.

지금 태안은 지역소멸의 그림자와 산업전환이라는
매서운 격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바람의 길을 읽어내는 노련한 조타수가 절실합니다.

저 박용성이 다시금 키를 잡겠습니다. 생명과 치유, 그리고
미래 첨단산업이 고동치는 서해의 심장부로 — 태안이라는 배가
다시 힘차게 출항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일상을 바꾸는 묵직한 결실로
제 쓰임새를 증명하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따뜻한 시선과
태안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장중한 보폭으로 다시 나섭니다.
태안의 벽찬 내일을 두 손 맞잡고
듬직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늘 곁에 있겠습니다.



1다 박용성

군민의 걱정과 근심을 '제도'로 바꿔낸 시간

지난 4년 동안 태안군 행정의 흐름을 살피고, 예산의 길목을 감시하며,
필요한 제도는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왔습니다.



첫째, 농어업 혁신 항공방제 · 드론 지원, 청년 방제 사업단, 재해예방, 보조금 공정관리 조례로 고령 · 소농의 부담을 덜고, 농어업 지원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둘째, 어민 생존권과 어촌관광 부남호 · 간월호 담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천수만 어민 피해에 맞섰고, 어촌관광 활성화 조례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구조를 세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대응 공공의료와 교육기반 부족을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짚고, 인구감소 대응 조례 개정, LPG 배관망 구축, 청년창업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넷째, 미래산업 기반 남부권 체류형 관광 구상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로 태안형 6차 산업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섯째, 안전망과 복지 예방접종 지원, 침수 · 산림재난 대응, 장애인기업 지원,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넓혔습니다.

여섯째, 지방정치와 재정 원칙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예산이 군민 모두의 이익에 맞게 쓰이도록 꼼꼼히 따졌습니다.



■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정책실행역량

• 의정정책 비전대상 최우수상(2022) •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2024)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2025) •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2025) • 충남의정봉사대상 (2026)

지금 태안은 깊은 위기앞에서 있습니다.

하나, 인구절벽 아이 울음은 줄고, 청년은 떠나고, 빈집은 늘어납니다.
교육이 약해지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공동체가 사라집니다.

둘, 뿌리째 흔들리는 농어업 기후변화로 병해충은 잦아지고, 안전사고는 늘고,
어장은 오염·남획에 시달립니다. 이대로는 태안의 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셋, 떠넘겨진 전환의 부담 화력발전소 폐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국가 전력을 떠받친 지역에 그 비용까지 떠넘겨선 안 됩니다.

넷, 벌어지는 삶의 격차 의료·교통·문화·복지가 읍 지역에 쏠려,
남서부권 먼 지역 주민은 매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칩니다.

다섯, 표류하는 미래산업 해양치유,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체류형 관광
— 미래 먹거리를 단기 예산 논리로 잡을 수 없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이 위기를 풀 수 없습니다.

현장을 알고, 조례와 예산으로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 많은 의원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담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며

- '완성'과 '수확'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의 흐름을 바꾸는 입법기관입니다.
박용성은 예산 파수꾼이자 조례 설계자로서,
공약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주민 삶에 닿을 때까지 감시하겠습니다.

태안은 '스쳐 가는 농어촌'이 아니라
살고 일하고 머무는 미래형 해양·농업·치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농어업을 지키는 태안

첨단기술과 안전한 노동환경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시설·운영자금에서 가공·체험·판매까지 제공해 농어촌의 부가가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체류관광과 해양치유의 중심 태안

영목항을 남부권 관문으로 세우고, 해양자원을 의료·휴양·바이오와 연결해 '돈이 도는 체류 관광'으로 바꾸겠습니다.

남서부권이 살애나는 균형발전 태안

이동·주거·교육·문화·체육을 하나의 생활권 보장정책으로 묶어 정주기반을 세우겠습니다.

재정을 지키는 태안

원칙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예산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태안의 경제지도와 생활 지형을 새로 그리는

담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태안의 미래를 여는 3대 전략, 20대 공약사업

체류형 해양관광·치유 생태계 조성 — 스쳐가는 길에서 머무는 종착지로

- 영목항 '오션 푸드 마켓' 조성 — 먹거리타운 + 상설 농수산물 판매장
- 해양치유센터 중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태안 위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 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위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 수산시장·항포구·해양치유센터 연계 관광벨트 구축
- 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 어촌체험마을·바다해설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6차산업과 농어업 혁신 — 농어민의부(富)를 재설계하다

- 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 남면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 청년 농업인 창업 투자
- 드론 항공방제단 지원 확대 +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 용·배수 갑문(수문) 개폐장치 자동화
- 항포구별 중소형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운영 — 지속 가능한 청정어장 조성
- 농어촌 유희공간 활용 6차산업 창업 지원

사람이 돌아오는 생활환경 — 떠나지 않아도 되는 태안

-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 이불 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 처리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 읍·면별 장애인·이동약자 이동차량 배치 운영
- 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 — 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할 '심부름꾼'을 뽑는 행사가 아닙니다.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흩어진 행정적 자원을 재배치하며, 조례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태안의 생존 시스템을 재설계할 '정책 설계자'를 선택하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저 박용성, 다시 군민 앞에 섭니다.
 풍부한 경험, 그리고 의정과 군정을 두루 아우르는 안정적인 리더십. 군민 곁에 이런 의원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무거운 자리, 저 박용성이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듣고,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용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현) 제9대 태안군의회 의원 · 부의장
- (전) 제8대 태안군의회 의원 ·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공동부위원장
- (현) 태안소방서 안면읍 남성의용소방대장
- (전) 한국농업경영인협의회 고남면 회장
- (전) 안면읍 사회단체장협의회 부회장
- (전) 태안반도 청년연합회장
- (전) 태안반도 고남청년회장
- (전) 안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 안면중학교 운영위원
- 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태안군의회 의원 선거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태안군 나 선거구)

1-가	○○당	○○○	
1-나	○○당	○○○	
1-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성	

박용성 1다